

N. 프라이 비평이 한국문예비평에 미친 영향*

남 승 우**

차 례

I. 머리말

III. 마무리

II. 본론

I. 머리말

신화원형 비평은¹⁾ 1960년대 이후로 그 어느 비평방법론보다 한국문학을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활발하게 원용되었다. 그리고 이 비평방법론이 지니는 특징 때문에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양쪽에 모두 중요한 방법론으로 채용되었다. 그런데 신화원형비평 이론의 논의가 서구로부터 비롯되었기에, 이들의 이론이 한국문학을 분석하고 비평하는데 원용되면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소통과정을 통해 발신되고 수신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리가 완벽하게

* 이 논문은 부경대학교 2001년 연구년 교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짐.

**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신화원형 비평은 그 명칭이 신화비평, 원형비평, 신화원형 비평 등으로 명명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신화원형 비평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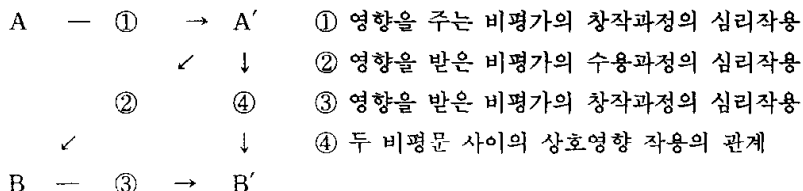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한국문예비평사를 영향사적인 관점에서 정리한다고 하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부분이다. 영향사적인 관점에서 비평이론이나 방법 자체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통해 비평이론을 정교화하고, 바르게 적용되지 못한 이론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오류를 극복해 갈 때, 문예비평의 실천은 더욱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화원형비평가 중 가장 영향력있는 활동을 한 노드롭 프라이를 대상으로 그의 비평방법론이 한국문예비평에 미친 영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는 노드롭 프라이 비평이론의 보편성을 검증하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문예비평사에 있어서 서구이론의 수용사의 일부를 정리하는 일이 되며, 나아가 한국문예비평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시사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주로 노드롭 프라이와 한국에서 신화원형적 비평방법론으로 문학 작품을 분석하거나, 연구한 연구자들이 남긴 문헌을 통해 연구를 했으며, 그 대상은 우선 현대문학 논의에 한정했다. 노드롭 프라이의 비평론 중 장르론에 대한 부분도 한국문학의 장르론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지만, 이 부분은 따로 연구가 필요하기에 남겨두었다. 그리고 연구방법은 영향 연구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비교문학적 연구방법에 기초해서 진행했다.

영향의 주체가 되는 비평가를 A라고 하고 그의 비평론을 A', 그리고 영향을 받은 국내의 연구자를 B라 하고, 그의 연구나 비평문들을 B' 라고 했을 때, 생겨나는 하나의 체계 속에서 비교문학적 연구가 가능하다. 이 체계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이 도식에서 A는 노드롭 프라이, A'는 프라이의 저작물들, 즉 그가 펼쳐 놓

은 비평이론이나 실제비평을 말한다. B는 한국의 연구자나 비평가, B'는 한국의 연구자나 비평가들의 비평이론이나 실제비평 혹은 연구물들로 대입해 놓을 수 있다. 여기서 A와 B 사이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영향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드룸 프라이와 한국의 연구자나 비평가와의 직접적인 만남이 없었기에, 이 관계는 현실적으로 형성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노드룸 프라이의 한국문예비평에 미친 영향의 고찰은 실질적으로 ②와 ④의 관계축 사이에서 나타나는 영향을 살필 수밖에 없다. 그리고 ②의 관계축은 프라이의 비평이론을 수용하는 심리적 혹은 내적 과정에 해당하기에 객관적으로 이를 검토하는 것은 어려운 점들이 많다. 그래서 프라이의 비평이론이 한국문예비평에 끼친 영향의 연구는 실질적으로 ④의 관계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교문화적 연구방법을 토대로 노드룸 프라이 비평이론이 한국비평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영향의 매개로서의 번역 현황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제기된 문학이론이 다른 지역으로 전달되어 영향을 미치려면, 일차적으로 그 이론의 발신자로부터 수신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전달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수용자가 직접 문학이론의 원전을 통하는 길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번역이란 과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용되는 경우가 많다. 번역이란 원문의 언어를 번역문의 언어로 말을 바꾸는 작업이기는 하지만, 이는 선진의 문학이론을 수용하여 자국의 문학이론으로 활용하려는 문화교류의 측면이 전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이란 언어, 민족, 이념, 문학, 과학, 및 문화 사이를 중개하는 것이다.²⁾ 즉 의사소통이라는 맥락에서 번역을 이해할 수 있다³⁾는 것이다. 특히 외국문학 이론의 경우는 대부분 번역을 통해 타국으로

2) W. Koller, 박용삼역, 『번역학이란 무엇인가』, 숭실대학 출판부, 1990, 52쪽.

3) Roger T. Bell, 『번역과 번역하기』(박경자, 장영준 옮김), 고려대 출판부, 2000, 29쪽.

전달된다. 그러므로 문학비평 방법론의 영향관계를 논하는데 있어, 번역의 문제는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매개의 하나이다. 외국문학 이론이 수용되는 나라의 말로 번역되는 번역서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영향원의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프라이의 경우도, 그의 문학이론이 한국문학비평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프라이의 저술이 한국어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다. 그래서 프라이의 비평이 한국문예비평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는데 있어 프라이 저술의 한국어로의 번역상황을 살피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프라이 저술이 국내에 처음 번역된 것은 1971년이다. 김상일에 의해 *The Educated Imagination*이 『신화문학론』으로 번역되었다. 사실 이 책의 내용은 프라이가 캐나다의 CBS 방송국에서 6회에 걸쳐 대중을 위해 방송한 원고를 책으로 묶어낸 것이다. 그 내용은 문학론, 문화론, 교육론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6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김상일은 책명을 『신화문학론』으로 명명하고 있으나, 사실 이 책에서 프라이가 신화문학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반 대중을 상대로 문학공부가 왜 필요한지, 문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문학연구는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태도를 이루는데 어떤 차이를 낳는가 등을 쉽게 안내하고 있는 책이다.

이런 측면에서 김상일이 번역을 하면서 <해제>에서 논하고 있듯이 이 책은 프라이의 이론체계를 알리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입문서가 될 수 있다.⁴⁾ 그러나 이 책을 김상일이 책명으로 내세운 것처럼 신화문학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책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런데 1971년에 김상일에 의해 번역된 이 책은 1987년에 이상우에 의해 다시 번역되었다.⁵⁾

이상우는 프라이의 이 책을 『문학구조와 상상력』이란 제목으로 번역·출간했다. 이상우 역시 6장을 그대로 번역하고 있는데, 장 제목은 동일하나 내용은 표현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 번역 내용의 차이를 다음 1장의 첫 단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N. 프라이, 『신화문학론』(김상일 역), 을유문고 63, 1971, 3쪽.

5) N. 프라이, 『문학구조와 상상력』(이상우 역), 집문당, 1987.

과거 25년 동안, 나는 어느 대학에서 영문학의 교육과 연구를 해왔다. 다른 직업의 경우에도 그럴 테지만, 마음에 집착하고 있는 의문이 있으니 그렇다고 누가 물어서가 아니라, 다만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지니게 된 의문이 있는 것이다. 문학의 연구는, 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일까? 문학을 연구하는 일은, 그것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욱 명확하게 생각하게 되고, 혹은 더욱 예민하게 느끼며, 혹은 훌륭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일까? 교사며 학자며, 그리고 나와같이 비평가라고 불리는 사람의 직능은 무엇일까? 문학을 연구하게 되면,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생기는가?⁶⁾

이상의 내용을 이상우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나는 지난 25년 동안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연구해 왔다. 그런데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로, 몇 가지 의문들이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 의문은 사람들이 그것을 물어오고 있어서가 아니라, 문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생기는 의문들이다. 문학을 연구하면 무슨 좋은 점이 있는가? 문학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때보다 더 명료하게 생각하게 하고, 더 예민하게 느끼게 하고 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가? 교사와 학자 또는 나처럼 문학비평가라고 불리는 사람의 직능은 무엇인가? 문학연구는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태도를 이루는데 어떤 차이를 낳게 하는가?⁷⁾

프라이의 *The Educated Imagination*을 두고 두 사람의 번역 문장은 표현이나 어휘선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은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이 두 사람에 의해 번역되었다는 것은 프라이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프라이의 두 번째 번역서는 『비평의 해부』(*Anatomy of criticism*)이다. 이 책은 1982년에 임철규에 의해 번역이 되었다.⁸⁾ 이 책은 현대비평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든 책이기에 그 비중과 영향력은 프라이의 어느 저술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신화비평을 논하는 한국의 논자들은 거의 이 책을 프라이의 신화비평론의 원전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4개의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6) N.프라이, 『신화문학론』(김상일 역), 을유문고, 1971, 13쪽.

7) N.프라이, 『문학구조와 상상력』(이상우 역), 집문당, 12쪽

8) N. 프라이, 『비평의 해부』(임철규 역), 한길사, 1982.

째는 역사비평: 양식의 이론이며, 둘째는 윤리비평: 상징의 이론, 셋째는 원형비평: 신화이론, 넷째는 수사비평: 장르의 이론이다. <도전적 서론>에서도 프라이가 밝히고 있듯이 이 책은 비평이 비평으로서의 자기존재를 분명히 확립하는 문학연구가 필요하다는 뚜렷한 비평적 자의식을 전제로 구상된 저술이기에 일관된 체계와 도식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책은 2000년 임철규에 의해 다시 판을 달리하여 출판되었다.⁹⁾ 이 책을 처음 번역된 책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며, 부분적으로 표현과 오자를 고친 정도이다. <도전적 서론> 부분에 나타나는 손질된 부분을 살펴보면, '짜여져 있다'→'짜여 있다', '이 책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여기서 다루고 있는',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다'→'가르침에 근거를 둔다', '원리에서부터'→'원리에서', '석녀(石女)와 같다라든가'→'석녀(石女)와 같다' 등¹⁰⁾의 문장 표현을 바꾼 정도이다. 그리고 역자의 말이 처음 번역서에는 짧은 인사말로 나타나 있지만, 두 번째 번역서에서는 프라이의 『비평의 해부』를 개관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프라이의 세 번째 번역서는 『성서와 문학』¹¹⁾인데, 문학비평가의 입장에서 성서를 연구한 책이다. 프라이는 영문학을 가르치면서 영문학의 이해는 성서의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경험을 했다. 이 책의 저술은 이 경험으로부터 출발한다. 주로 성서 속의 설화와 이미지리의 통일된 구조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크게 1부 <말의 질서>와 2부 <예형의 질서>로 나뉘어져 있고, 성서 속에 나타난 언어, 은유, 신화, 예형론을 집중적으로 논하고 있다. 프라이의 첫 저술인 『무서운 균형』(Fearful Symmetry)이나 그의 두 번째 저술인 『비평의 해부』(Anatomy of Criticism)에서 제시된 체계들이 많은 부분 성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저술은 그의 다른 책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비평이론의 많은 쟁점들은 그 기원을 성서의 해석학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대의 많은 비평가들은 성서비평이 세속문학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이 지니는 의미가 크다.

프라이의 네 번째 번역서는 『구원의 신화』(The Myth of Deliverance)이다.

9) N. 프라이, 『비평의 해부』(임철규 역), 한길사, 2000.

10) 위의 책 중 임철규의 새번역서 45-46쪽 참조

11) N. 프라이, 『성서와 문학』(김영철 역), 숭실대출판부, 1993. 이 책의 원제목은 The Great Code이며 부제가 the Bible and Literature이다

이 책은¹²⁾ 프라이가 셰익스피어 작품 연구를 통해 회극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파악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라이는 1965년에 『자연적 전망』이란 회극론을 펴낸 바 있지만, 1981년에 다시 『구원의 신화』를 펴내어 회극의 개념을 인간의 체험과 관련시켜 현실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 책은 부제가 <셰익스피어의 문제 회극 고찰>로 되어 있지만, 셰익스피어 작품들은 논의의 대상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며, 이 저술의 논지는 회극에 대한 전반적인 양상을 통시적인 안목으로 심도있게 고찰하고 있다. 책의 전체 구성은 1장 <행위의 반전>, 2장 <힘의 반전>, 3장 <현실의 반전>으로 되어 있다.

프라이의 다섯 번째 번역서는 『두 시선』(The Double Vision)이다. 이 책은¹³⁾ 프라이가 죽고 난 후에 발간된 그의 마지막 저술이다. 그가 죽기 전 1990년에 엠마누엘 대학 동창회 모임 때 강연한 내용을 중심으로 꾸며져 있는데, 이 강연이 주로 캐나다 연합교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책의 내용 역시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4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프라이가 평생 추구해온 근본적인 생각들을 종합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종교적 성격의 책을 넘어서고 있다. <언어>, <자연>, <시간>, <신>이란 4개의 주제를 통해 그의 세계관과 사상을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에, 상상력의 실재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볼 수 있게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프라이의 단행본은 아니지만, 『문학과 신화』라는¹⁴⁾ 주제로 펴낸 번역서에 프라이의 『문학과 신화』, 『문학의 원형』, 『신화·허구·변형』, 『酒酣船: 낭만주의의 혁명적 요인』등이 번역되어 실려 있다.

이렇게 프라이의 저술이 한국어로 5권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러한 번역의 상황은 프라이의 저술이 전부 30권이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렇게 많이 번역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12) N. 프라이, 『구원의 신화』(황계정 역), 국학자료원, 1995.

13) N. 프라이, 『두 시선』(남송우 역), 세종출판사, 2003.

14) 이 책은 김병욱, 김영일, 김진국, 최정무 등이 참여한 편역서로서 <신화와 문학>에 관한 16편의 글을 번역하여 실었다. 김병욱 등 외 3인 편역, 『문학과 신화』, 대방출판사, 1982

2. 영향의 원천으로서 노드롭 프라이 비평이론

프라이의 책이 5권 한국어로 번역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실제 한국 문예비평사에서 신화비평론과 실제비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책은 『비평의 해부』이다. 이 책에서 프라이는 자신이 목표로 세웠던 ‘문학 자체가 지나고 있는 체계나 원리를 찾아내어, 이를 모든 문학의 해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보편적 원리를 세우는 일’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한국문예비평에 끼친 영향의 주요한 한 원천으로서 이 저서를 중심으로 그의 비평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4개의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에세이에서 그는 문학이 성립한 이래로 모든 문학작품들은 5가지의 역사적인 문학양식으로 기술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양식은 신화, 로맨스, 고급모방, 저급모방, 아이러니인데, 전능한 신적 존재, 반인반신, 영웅, 보통사람, 그리고 인간 이하의 존재가 각각의 양식의 주인공이 된다.¹⁵⁾ 그런데 각각의 문학 양식 속에 속해 있는 작품들은 그 속에서 복잡하기도 하고 소박하기도 하며, 비극적이기도 하고 희극적이기도 하다고 본다. 이는 바로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즉 복잡한 희극적 로맨스라든가 소박하고 저급한 모방적 비극 등으로 문학 작품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프라이가 주장하는 바가 하나의 문학작품이 주된 문학양식을 유지하면서, 다른 양식들과 관계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두 번째 에세이에서는 문학적 상징의 다섯 가지 양식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우선 기술적 양식에서 문학언어는 지시적인 것으로, 문자적 양식에서는 비지시적인 것으로 형식적 양식에서는 자율적이고 사례적인 이미지로 되고 신화적인 양식에서는 문학언어가 원형을 드러내며 신비적 양식에서는 문학언어가 지시나 사례 등과 같은 상황에 의하여 구속될 수 없는 존재의 총체적인 상징을 제시하게 된다. 그래서 상징의 이론 다섯 가지 비평양상은 양식의 이론에서 보았던 다섯 가지 서술양식에 적절한 비평방법이 된다. 신비적 양상은 신화에, 신화적 양상은 로맨스에, 형식적 양상은 상위모방에, 기술적 양상은 하위모방에, 그리고 축자적 양상은 아이러니에 각각 대응하는 것이다.¹⁶⁾ 여기서 프라이는 신

15) N. 프라이, 위의 책(임철규 역), 28쪽.

화적 양식 즉 원형비평에 제일 관심을 보이며, 이를 세 번째 에세이에서 다루고 있다. 언어와 비평에 관한 이론의 근거에는 일반적인 담론과 시적 담론을 분류하려는 프라이의 입장이 개재되어 있다. 또한 그는 교훈적 특징을 지닌 시학보다 정서적 환기력을 지닌 시학의 가치를 더욱 의미있게 생각한다.

세 번째 에세이 신화이론은 특히 프라이 비평의 독창성이 부각되는 부분이다. 프라이는 문학의 요소를 구조적인 것과 재현적인 것으로 구분하는데, 이 때 전자가 추상적인 형식이라면, 후자는 실제적 내용이 된다. 다른 비평체계들이 재현적 요소에 몰두한 나머지 작품의 외부에서 작품을 재단하는 기준을 끌어 들인다고 생각하는 프라이는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문학교육의 구조적 원리를 밝히는 것을 비평의 목표로 삼는다. 문학을 자기충족적 구조로 볼 때, 그 기호의 문법에 해당하는 원리는 성서와 고전의 신화라는 것이 프라이의 견해다.¹⁷⁾ 그리고 문학비평의 전제는 문학의 구조적 원리인 원형이다. 문학적 원형과 문학적 인습에 관한 체계에 관심을 보이면서 신화비평은 문학의 사회공동체적인 양상에 역점을 두는 것이다. 즉 신화란 그 사회문화적인 산물이며 신화가 발생한 그 사회공동체와 무관할 수가 없기에 신화비평 역시 문학의 사회공동체적인 양상에 역점을 둔다는 것이다. 프라이는 여기에서 문학적 이미지와 구성, 인물들을 분류하는 한편, 역사의 초기에 발생한 문학의 범주를 로맨스와 비극, 아이러니 그리고 희극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각각의 영역은 신화탐구와 관계된다. 그리고 모든 문학작품들은 투쟁을 거쳐 혼란에 이르고, 다시 이를 거쳐 파멸에 이르고 죽음을 통과하고 소생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재생의 패턴을 제시한다.

네 번째 에세이에서는 작가와 독자가 맺는 관계를 장르 구분의 기준으로 하여, 말하는 에포스, 인쇄된 픽션, 노래하는 서정시, 연기하는 드라마라는 네 장르를 구분하고 있다. 작가가 직접 독자에게 말을 거는 작품은 에포스의 장르에 속하고, 처음부터 인쇄를 의도한 작품은 픽션의 장르에 속한다. 그리고 시인이 전면에서 드러나고 독자가 숨어서 발화를 엿듣는 형식이 서정시라면 작가가 배우 뒤에 숨어서 배우와 관객의 관계를 가로막지 않는 형식은 드라마가 된다.¹⁸⁾

16) 위의 책, 31쪽.

17) 위의 책, 33쪽.

또한 프라이는 이 4개의 장르를 앞의 에세이에서 논의한 바 있는 역사적 양식과 상징적 양식들과 관련시키고 있다.

이렇게 프라이는 네 개의 에세이를 통해서, 문학작품에 대한 이해를 시인의 의식적인 혹은 무의식적인 의도에 제한해 버리는 비평가들의 태도를 개탄하면서 표현주의 시학과 전기적 비평을 평가절하하였다. 작품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개인의 의도가 아니라 물개성적이며 모든 것을 문학자체 속에 동화시켜 형식을 이루는 문학의 심미적 속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러한 프라이의 체계는 여러 비평적 태도와 조화될 여지를 마련해 놓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비평적 폭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프라이의 원형비평은 문학외적인 요인을 중시하는 비평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형식주의적인 측면과 닮아있다. 프라이는 맑시즘이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비평 그리고 현상학은 문학 내적인 범위에서 개념적인 틀을 마련하지 않고 문학외적인 데서 문학을 해명하는 틀을 마련한다는 문제점을 지닌다고 비판한다. 즉 문학비평 원리들은 신학이나 철학, 정치학, 과학과 같은 분야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학은 자체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분야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런 점에서 원형비평은 역사와 윤리학의 경계에 접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바로 문명이 이룩해 놓은 내용들을 문학 속으로 이동시켜 놓았다고 할 수 있다. 문학외적인 분야에 대한 관심을 원형비평이 제공할 수 있는 신화세계의 일부로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프라이는 「비평의 해부」 이후에 내놓은 그의 비평론들에서는 문학 자체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회문화적 관심을 함께 표명함으로써 「비평의 해부」에서 견지했던 태도가 어느 정도는 바뀌게 된다. 즉 비평은 두 가지 양상을 지니게 되는데, 한 가지는 문학의 구조를 향해 있고, 다른 하나는 문학의 사회적 환경을 결정하는 문화적 현상을 향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양상은 서로 균형을 맞추어 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비평적 입장이 그가 펴낸 문학비평의 사회적 문맥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비평적 길」, 문학이 가진 상상력이 인간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가는가를 대중적

18) 위의 책, 36쪽.

언어로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는 「교육된 상상력」, 그리고 캐나다에 있어서의 영어교육, 문학의 사회적 중요성, 문학교육, 인문학 교육, 교육으로서의 비평 등 교육의 문제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 「교육에 대하여」 등에 잘 드러나고 있으며, 문학과 종교와 사상이 함께 융합되어 있으면서, 그의 사상의 정수를 드러내고 있는 그의 마지막 저술인 「두 시선」에서는 이러한 그의 입장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고 프라이의 이런 태도를 문학의 자율성을 포기하거나 비평의 독립성을 비문학적인 사상의 분야들과 타협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며, 인간존재의 다양하게 분리되어 있는 영역들 사이의 관계를 소통시키려고 하는 그의 비평적 시야의 확대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프라이의 이러한 비평적 행로는 제이스나 피들러, 버크가 보인 바 있는 문화비평적 성격을 지나게 된다.¹⁹⁾ 문화비평적 관점을 견지한 매슈 아놀드의 비평에 깊이 관심을 가졌던 프라이와 그의 비평론들이 현재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의 한 대상으로 논의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하나 「비평의 해부」 이후 프라이 비평의 관심은 「위대한 법전」이나 「힘있는 말씀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성경을 중심한 언어와 은유, 상징과 원형 등의 분석이다. 두 저서는 연속적인 기획물로서²⁰⁾ 프라이의 후반기 비평적 활동에서는 빼 수 없는 중요한 비평적 성과물이다.

3. 수용으로서의 노드롭 프라이 비평의 양상

프라이의 비평론이 한국에서 전개되는 양상은 편의 상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비평 이론적인 측면에서 소개되고, 논의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이론을 토대로 실제 한국문학 작품을 분석하고 비평한 실제비평적인 측면이다. 그래서 이 두 측면에서 프라이 비평이론이 한국문예비평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요한 텍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 A.C. Hamilton, "Northrop Frye as a Cultural Theorist", *Rereading FRYE*,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9, p.111.

20) Joseph Adamson, *Northrop Frye A Visionary Life*, ECW Press, 1993, p.80.

(1) 이론비평의 측면

이론적인 측면에서 프라이의 영향을 살필 수 있는 텍스트는 주로 신화, 원형 비평방법론을 정리하고, 설명하고 있는 저술을²¹⁾ 통해서 나타난다.

이상섭은 그의 <신화비평 방법>에서²²⁾ 프라이를 대표적인 신화비평가로 지목하고, 그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한국문학에서의 신화적 체계의 가능성을 예시하고 있다. 그가 프라이의 신화비평론을 소개하기 위해 주로 인용하고 있는 프라이의 이론은 <Literature and Myth>와 <The Archetypes of Literature>에 발표된 것인데, 이는 『비평의 해부』에 종합되어 있다. 이 중 이상섭이 주요하게 소개하고 있는 프라이의 신화이론은 사계의 신화와 원형적 심상이다.

사계신화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뉘어지는데, 이는 하루의 시간으로 볼 때는 새벽, 정오, 석양, 어둠에 상응하며, 인생살이 단계로 보면, 출생, 결혼, 죽음, 해체의 단계에 해당한다²³⁾ 그리고 각 단계의 신화 내용으로는 봄은 부활과 재생, 창조의 신화가 있고, 여름은 인간의 신격화, 거룩한 혼인관계, 낙원에의 입장에 관련된 신화, 가을은 신의 사망, 영웅의 급작스런 죽음, 영웅의 고립에 관한 신화, 겨울은 대홍수와 대혼돈의 신화, 영웅 패배의 신화 등이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²⁴⁾

또한 원형적 심상부분에서는 ①인간의 세계 ②동물의 세계 ③식물의 세계 ④광물적 세계 ⑤형성되기 이전의 세계로 나누어 회, 비극적 비전에 해당하는 원형들을 제시하고 있다.²⁵⁾

이선영은 『문학비평의 방법과 실제』에서²⁶⁾ 각 비평방법론을 설명하면서, <신화형성 비평 서설>에서 N. 프라이의 비평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신화형성비평론의 내용은 쉘던 노먼 그레브스타인이 쓴 <신화

21) 국내에 출판된 문예비평론에 관한 책들에서, 신화비평방법론은 한 항목으로 언제나 소개되고 있기에 N. 프라이의 비평방법론을 소개하고 있는 책들은 많다. 그러나 여기서는 영향의 측면에서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한 중요한 몇 권만을 다루고자 한다.

22) 이상섭, 『문학 연구의 방법』, 탐구당, 1972

23) 위의 책, 164쪽.

24) 위의 책, 164쪽.

25) 위의 책, 165-166쪽.

26) 이선영 편, 『문학비평의 방법과 실제』, 동천사, 1983

형성 비평가의 서설>을 번역한 글이다. 여기서 그레브스타인은 “신화형성론적 조망은 프라이의 『비평의 해부』에 의하여 가장 인상적으로 대표되어 왔는데 이 책은 신화형성 비평운동 전체의 <시학> 노트를 하고 있다”고²⁷⁾ 전제하고, 이 책은 “이 세대에 출현한 문학이론서로서는 가장 자주적인 저술의 하나요, 현대의 비평가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책이라고 말해 두는 것이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된다”고²⁸⁾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선영은 해설에서 『비평의 해부』를 중심으로 프라이의 신화비평론을 설명하고 있다.

현대 신화비평의 중심인물인 프라이는 원형을 고대의 제례의식에 있어서의 죽음과 재생, 구약성서에 있어서의 낙원 등의 관념에서 찾았다고 본다. 낙원의 행복이란 자기와 외계와의 조화 즉 자기동일성의 성취를 의미하고 그 대극에 있는 낙원상실이란 자기동일성의 상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생각하면 문학작품의 근원적인 형태는 자기동일성 탐구의 신화로서 규정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프라이는 『비평의 해부』가운데 셋째 에세이 <원형비평 ; 신화의 이론>에서 문학작품을 자기동일성의 성취와 상실이라는 양극 사이에서 주인공이 밟는 운명의 온갖과정에 따라 분류하였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과정에 맞추어 네 계절의 순환에 대응하는 희극(봄), 로만스(여름), 비극(가을), 아이러니(겨울)의 네 이야기로 대별했다는 것이다.²⁹⁾

또 프라이는 둘째 에세이에서 시적언어의 상징을 논하면서 원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는 상징을 한 편의 시 속에 한정하여 논하지 않고 그것과 다른 시속에 사용되는 시적 상징과의 관련에 주목하였다. 예컨대 우주의 4원소인 땅, 물, 불, 바람과 그 변형인 바다, 샘, 내, 산, 동굴, 혹은 정원, 나무, 도시 등의 시적 상징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복수의 시 속에 거듭 쓰이는 상징 즉 원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원형은 각각 단독의 의미를 가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온갖 원형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문학적 우주의 최소단위의 상징 즉 단

27) 위의 책, 370쪽.

28) 위의 책, 371쪽.

29) 위의 책, 18-19쪽.

자(monad)가 성립된다고 했다. 그리고 이 단자로서의 원형에는 소망의 뜻이 들어 있으며, 제례의식과 꿈이라는 두 요소가 원형 속에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례의식과 꿈의 표현이 신화라는 것을 생각하고 시적 상징을 역시 제례의식과 꿈을 지닌 원형으로서 파악하면 문학은 어떤 의미에서 신화인 셈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화는 신이 주인공이 되는 것과 같은 좁은 의미의 신화라기보다는 넓은 의미의 신화이다. 넓은 의미의 신화로서 문학작품이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좁은 의미의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을 프라이는 <자리바꿈>이라고 불러 좁은 의미의 신화가 <자리바꿈하지 않은 신화>라면 넓은 의미의 신화 즉 문학은 <자리바꿈한 신화>가 된다고 설명한다.³⁰⁾

김열규는 신화비평론의 전개양상을 <신화비평론이 있기까지>, <신화비평의 비평사적 맥락>, <신화와 문학>, <신화비평의 국면들> 등으로 나누어 다루면서, 노드롭 프라이의 비평론을 소개하고 있다. <신화와 문학>을 다루면서, 김열규는 신화와 문학의 관계를 다룰 때, 두 가지 서로 다른 말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무턱대고 둘을 한 족보에 싣고 문학을 신화의 支孫쯤의 자리에 앉히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본다. 그래서 그는 노드롭 프라이가 말한 문학은 문학이 낳는다 라는 명제로 그의 신화비평의 처지를 주장한 것은 따라서, 상당한 유보조건을 붙여 이해해야 한다고³¹⁾ 주장한다.

즉 그의 명제에서 앞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문학을 덮어놓고 신화와 동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김열규가 신화와 문학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파악하는 신화와 문학과의 관계는 이란성 쌍둥이에 전주어지기 때문이다. 신화가 먼저 생기고 뒤따라 그 속에서 문학이 생겨났다는 명제가 부분적으로 유효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유효성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김열규의 신화와 문학에 대한 논의는 노드롭 프라이가 신화와 문학과의 관계는 명시적이거나 함축적일지도 모른다는³²⁾ 견해의 또다른 해석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프라이의 신화와 문학론의 영향을 읽어낼 수 있다.

그리고 <신화비평의 국면들>에서는 프라이의 뮈토스 개념과 뮈토이 개념을

30) 위의 책, 19쪽.

31) 김열규, 신화비평론, 『문예비평론』(신동욱 편), 고려원, 1994, 215쪽.

32) 프라이, 『문학과 신화』, 『문학과 신화』(김병욱 외편), 예림기획, 1998, 23쪽.

설명함으로써 그의 비평이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프라이의 이론에서 뮈토스는 다이아노이아와 짝지워져 양극의 대립을 이룬다. 회합어에서 지식을 뜻하는 다이아노이아는 로고스와 대치될 수 있는 개념이다. 이것이 프라이에 의해 음악의 調(key)에 대응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리듬에 견주어 진 뮈토스와 함께 다이아노이아는 이미지 또는 상징이 조직체 또는 통합체가 된다. 이미지의 정적인 유형 또는 관념의 유형이 다이아노이아라면, 한 이미지의 구조에서 다른 이미지의 구조로 옮겨가는 서사적 움직임이 곧 뮈토스라는 것이다.

그러나 프라이는 다시 뮈토이라는 개념을 설정한다. 이는 뮈토스의 순환적이고 변증법적인 움직임에서 유추할 수 있는 문학의 서사적 범주이다. 이 뮈토이라는 범주는 일반적인 문학장르보다 광범위한 포괄성을 지니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그것들보다 앞서 있는 前發生的 혹은 母胎的인 요소가 된다. 구체적으로는 성공과 실패, 노력과 휴식, 삶과 죽음 아니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의 순환하는 움직임이 뮈토스라면, 희극, 로망스, 비극, 그리고 아이러니(풍자 혹은 리얼리즘) 등은 뮈토이의 양상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뮈토스나 뮈토이라는 두 개념에 걸쳐서 프라이의 신화라는 개념은 그 자체 이미 신비화 내지 신화화된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³³⁾

신동옥은 「신화비평론 서설」에서³⁴⁾ 신화비평론을 다루면서 N. 프라이의 원형론을 소개하고 있다. 그가 다루는 원형은 다섯 가지 원형 즉 신, 인간, 동물, 식물, 광물계로서의 도시의 원형 등이 목지적 심상, 악마적 심상, 유추적 심상에서 각각 어떻게 의미되는가를 살피고 있다.

목지적 심상을 드러내는 목지적 세계는 종교적인 하늘로서 인간문명의 노작에서 볼 수 있는 형태들에 의하여 지시된다고 보았다. 즉 인간의 욕망의 형태에서의 현실성의 테두리이다. 그리고 식물계에 부과된 인간의 욕망의 형태는 정원(흔히 동산, 에멘 동산), 농장(또는 목장), 숲 등이다. 동물은 길들인 것이어야 하고 흔히 양은 기독교적 표현의 은유의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광물의 경우는 돌을 사랑의 힘으로 변형한 도시가 중요한 상징이 된다. 도시, 정원, 목장

33) 김열규, 같은 책, 225-226쪽.

34) 이 글은 신동옥 외 지은 『신화와 원형』, 고려원, 1992에 실려 있다.

등은 성경의 조직화된 은유들로서 기독교의 상징이며, 이것들은 목시나 계시로 불리우는 책 속에서 완전한 은유적 동일화를 이룬다고 본다.³⁵⁾

그리고 악마적 심상은 목시의 상징에 반대되는 세계로서 욕망이 성취되지 못하고 거절된 세계를 제시한다고 본다. 즉 악몽의 세계로서 회생, 구속, 고통, 혼란 등의 심상으로 표현되는 일체의 대상을 포괄하고 있는 세계이다. 목시적 심상들은 시에 있어서는 종교적인 천국과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으나, 이 악마적인 세계는 정반대로 단테의 지옥과 같은 존재적인 지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악마적인 인간계의 심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로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에서 라스콜리니코프로 하여 전당포의 노파를 살해하는 장면을 들고 있다.³⁶⁾

마지막으로 유추적 심상을 설명하는데, 목시적 심상은 신화적 양식에 적합하고, 악마적 심상은 반어적 양식에 적합하나 나중에는 신화에 귀착하지만, 시에서는 영원히 불변하는 천국과 지옥의 두 세계를 다루기보다는 대개 덜 극단적인 다른 세 가지(영웅의 이야기, 높은 모방, 낮은 모방) 세계를 다룬다는 것이다. 이 세 구조들은 약간은 덜 엄격한 은유적인 세계로서 우리가 이르는 바 분 위기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심상들의 성좌들로 보고 있다.³⁷⁾

이렇게 한국의 비평논자들의 신화,원형비평론은 N. 프라이의 비평이론 중 「비평의 해부」에 나타나는 신화,원형비평 이론에 한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2) 실제비평의 측면

김상일은 한국에서는 최초로 1971년에 노드롭 프라이의 방송원고인 「교육된 상상력」을 번역 소개한 장본인으로서 프라이의 비평이론을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작품분석에 적용했다. 그 구체적인 작품은 황순원의 「목숨이 마을의 개」이다. 그는 황순원의 이 작품은 역사주의적인 방법으로만 해석해서는 안되고, 문학의 구조원리인 상징체계 즉 원형을 찾아내는 접근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분석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작품에 이미 시사한 바와 같이 기원이 있었고, 또 전체문학상 속에 기본적 요소처럼 되풀이 나타난 원형이나 상징과 대응

35) 위의 책, 39쪽.

36) 위의 책, 41쪽.

37) 위의 책, 42쪽.

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⁸⁾

이런 토대 위에서 그는 <어디>라는 공간이 작품 속에서 지나는 상징체계를 어디→암흑→복널→복간도→겨울→기아→붕괴→해체→죽음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목>이 지나는 상징체계는 목→수목→봄→탄생→재생→호흡→식도→목숨→여명→동쪽→대지→은→길로 나타나며, 이는 <어디>가 보여주는 상징체계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즉 <어디>는 카오스, <목>은 빛과 대응되는 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카오스→죽음이라는 상징체계와 목→빛→탄생이라는 상징체제로 다시 분석해 내고 있다.

또한 <개>가 지나는 의미를 분석하여 전체문학상 속에서 되풀이 나타나는 원형을 탐구하고 있다. 즉 개가 당하는 고통과 굴욕의 연속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작품의 발단에서 어디→암흑→죽음의 상징체계가 시사한 것처럼 절망적인 것이었다고 본다. 그런데 발단이 절망적인 이상 그 원인관계에 의해서 종말도 당연히 절망적인 파국으로 끝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노드롭 프라이가 「비평의 해부」에서 풍자적 플롯은 종말에서 발단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고³⁹⁾ 지적한 바를 그대로 수용하여 작품분석에 적용한 결과이다.

김상일은 또 이 작품이 발단에서 이미 분석한 상징체계인 목→여명→탄생, 재생이라는 하나의 상징체계를 이 작품이 함축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결국 순원문학의 종말은 동시에 발단이요 또 탄생, 재생, 창조를 의미한다고⁴⁰⁾ 결론 짓고 있다. 이는 바로 프라이가 밝힌 풍자적 플롯은 종말에서 발단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는 명제에 따른 작품분석이다. 즉 노드롭 프라이의 비평적 관점이 한국문학 작품 분석에 적용되고 있는 경우이다.

오세영은 <한국의 현대시와 신화>에서 한국의 현대시에서 신화적 요소가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는 시에 나타나는 신화언어의 의미론적 전이를 4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다. ① M형 ② M>P형 ③ M=P형 ④ P형이 그것이다.

38) 김상일, 「순원문학과 원형」, 『월간문학』, 1975, 7, 195쪽.

39) 김상일, 같은 책, 201쪽.

40) 김상일, 같은 책, 203쪽.

그런데 ① M형이란 창조적이며 새로운 의미의 첨가없이 신화적 상황에 있어서의 원래 신화의 일부로서 그 표면적인 의미를 그대로 간직한 경우, ② M>P형은 현대적인 것으로 의미변용을 하지만 그 창조적인 의미가 아직도 신화에 의하여 지배되는 그러한 의미를 뜻하며, ③ M=P형은 새로운 의미와 신화적 의미가 동등하게 융합되고 상호침투됨으로써 이상적인 의미를 형성하는, ④ P형은 원래의 신화적 의미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새로운 의미를 갖는 형태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을 확인 시켜 줄 시편들을 선택하여 현대시에 나타나는 신화적 요소들을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오세영은 이 4유형을 분석하여 M=P형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지적하면서, 프라이의 신화이론과 관련시키고 있다.

이상의 4유형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M=P형이라고 볼 수 있다. 시가 일상세계의 초극의 수단일 때 우리는 시속에서 신화적 세계(영원한 세계)의 추구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시도하고 있을 것이며, 인식의 굴절이 큰 것이 M=P형이기 때문이다. M형은 너무나 신화적 상황에 집착하여 장식품으로 쓰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공감을 주지 못하며 P형은 너무나 현실적인 사물의 의미를 추구하므로써 시에 있어서 영원성 또는 초월성의 이미지를 형상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M=P형보다 열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드롭 프라이는 신화의 이와같은 의미론적 굴절을 고차원적인 모방(High mimetic)과 저차원적인 모방(Low mimetic)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필자의 구분법을 이에 적용시킨다면 M형, M>P형은 고차원적인 모방에, M=P, P형은 저차원적인 모방에 해당될 것이다.⁴¹⁾

이상과 같은 오세영의 노드롭 프라이 이론의 원용은 프라이의 「비평의 해부」에 나오는 체계로서 그 적용가능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적용이 너무 도식적이라는 면은 있지만, 프라이의 신화비평론의 한국적 적용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 오세영은 「한국 현대시의 두 세계」에서⁴²⁾ 프라이가 제시하고 있는 예시적 이미지리, 악마적 이미지리, 유추적 이미지리를 중심으로 이상과 소월 시를 분석하고 있다. 각 시인의 작품에 나타나는 이미지리의 빈도

41) 오세영, 「한국의 현대시와 신화」, 『월간문학』, 1975, 12, 209쪽.

42) 오세영, 「한국 현대시의 두 세계」, 『문학비평의 방법과 실제』(이선영 편) 385-414쪽.

를 통계처리함으로써 이 시인들이 지니는 특성을 해명하고 있다.

김병욱은 김동리의 작품을 신화비평적 관점에서 다루면서, 그가 노드롭 프라이의 비평방법을 수용하고 있음을 우선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동리문학의 본질을 구명하려 든다면, 현대비평의 현란한 여러 스펙트럼 중에서 자연히 그의 소재와 주제의 상관관계로 보아 신화비평(mythopoetic criticism) 혹은 민속비평(folk criticism)의 메스로써 다루게 될 것이다. 하이먼(S.E. Hyman)은 현대비평을 문학에 투영된 비문학적 기교와 지식의 조직적 사용이라 했다. 동리문학이 출발점부터 민속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상 그의 문학 분석은 어쩔 수 없이 신화비평 내지 민속비평의 시험대 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가치평가는 되도록 피하려고 한다. 프라이(N. Frye)의 말과 같이 역사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가치의 척도는 달라지기 때문에 유동적인 척도에 의해 자칫 재단비평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려는 의도아래 분석에 그치고자 한다. 그러나 분석은 그 자체가 책임회피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역사주의 비평의 극복을 시도한 프라이의 「비평의 해부」가 뜻한 노선에서의 분석이란 점을 밝혀둔다.⁴³⁾

이러한 입장에서, 김병욱은 김동리의 소설들(늑과 당고개 무당)은 인간 생의 아이러니를 통하여 낙원에의 향수를 해결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그의 미학은 이 비극적 아이러니의 인식에서 싹트고 그 해결의 꽃을 희생의 제단 위에 꽃피운다는 것이다.⁴⁴⁾ 또한 「향토기」, 「한내마을의 전설」 등에 나타나는 자연에 주목하고, 특히 달, 물, 여자의 상징의 탐색을 프라이가 제시하고 있는 원형에서 찾고 있다.

달, 물, 여자의 상징은 인류학, 민속학, 비교종교학에 있어서 언제나 동반하여 작용한다. 그것들은 보편적으로 상징의 원형들이다. 달을 애운 수많은 신화들 속에서 그들은 언제나 상관적 역학에 매어져 있다. 이러한 소재를 놓고 동리문학을 다룰 때 프라이의 이른 바 문예인류학(Literary Anthropology)을 상기하게 된다. 이런 신화적 요소의 동일성을 놓고 그는 문학의 원형을 신화에 두고 있는 것이다.⁴⁵⁾

43) 김병욱, 「영원회귀의 문학」, 『문학과 신화』, 예림기획, 1998, 338-339쪽.

44) 김병욱, 같은 책, 340-341쪽.

45) 김병욱, 같은 책, 346쪽.

이러한 원형들의 분석을 통해 김병옥은 동리문학이 영원회귀의 지향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런 김병옥의 동리문학에 대한 접근은 “문학에 있어서 소위 신화비평은 문학의 어떤 종류와 양상에 대한 연구가 아니며, 더구나 특허된 비평적 방법론은 아니고 문학 그 자체의 구조적 원리, 특히, 관례, 장르, 그리고 재현되는 영상의 원형에 대한 연구다”라는⁴⁶⁾ 프라이의 입장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우는 1987년에 프라이의 저서 『교육된 상상력』을 번역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김동리의 작품을 신화비평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상우는 김동리의 <무너도>와 <달>을 신화적 상상력이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이 작품에 나타나는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죽음에 대한 비전이 근원세계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N. 프라이의 이론을 끌어들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또한 이 두 소설은 탄생과 고난의 삶의 모습만이 아니다. 죽음에 대한 비전까지도 보여준다. <毛火>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였을 때, 기꺼이 물 속으로 잠겨들었듯이 <정국>과 <달이>도 물 속으로 투신하는 것으로 종결짓고 있다. 이는 곧 근원세계로 회귀하는 모습들이다. 우리는 흔히 신화의 영웅이나 고소설의 주인공들이 (a)천상계(혹은 지상계)에서 득죄하고 인간계에 유배된 후, (b)시련 끝에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c) 죽어서 다시 근원세계로 회귀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생의 과정은 N. 프라이가 말했듯이 하늘에 떠오른 태양이 어둠에 묻혔다가 다시 떠오르는 운행이나 사계의 변화에 따른 식물의 생장소멸을 반영한 것이다.⁴⁷⁾

인용부분 중 프라이가 사계의 변화에 따른 식물의 생장소멸을 반영했다는 표현은 프라이가 그의 저서 *The Educated Imagination*에서 고전적 신화는 성서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영웅의 신이한 탄생, 승리와 결혼, 죽음과 배반, 그 결과로 일어나는 재생이 태양과 계절의 리듬을 따르는 영웅에 관한 주요 신화의 주된 삽화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⁴⁸⁾

46) 노드롭 프라이, 「문학과 신화」(김영일 역), 『문학과 신화』, 예림기획, 1998, 29쪽.

47) 이상우, 「동리문학과 신화적 상상력」, 『문학의 구조와 상상력』, 집문당, 1987, 184쪽.

48) The classical myths gives us, much more clearly than the Bible, the main

이렇게 이상우는 N. 프라이의 비평적 이론을 원용하여, 김동리 작품이 지닌 근원으로서의 회귀성을 프라이의 신화이론 중 신화가 지닌 특성과 관련지어 해석해 내고 있다.

지금까지 다룬 몇 편의 실제 비평이나 연구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N. 프라이 비평이론의 한국문학에 대한 적용은 주로 프라이의 『비평의 해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N. 프라이의 중심 이론이 『비평의 해부』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까지 N. 프라이의 신화비평론들에 의해 한국문학 작품들이 분석되고 있기에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나머지 평문이나 연구논문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남겨진 과제이다.⁴⁹⁾

Ⅲ. 마무리

한국문예비평 속에 나타난 N. 프라이 비평이론의 영향의 양상은 이론적인 측면이든 실제비평적인 측면이든 모두 프라이의 「비평의 해부」를 중심한 신화원형비평에 거의 국한되어 있다. 프라이가 「비평의 해부」 이후에 전개한 성격을 중심한 문학적 언어나 은유, 상징, 원형에 대한 탐구와 사회와 문화를 향한 그의 문화비평적 성격에 대해서는 한국문예비평에서 그 영향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는 「비평의 해부」가 프라이의 원형비평을 본격적으로 보여준 저서이기도 하고, 이것이 프라이 비평론의 중심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그의 비평이론이 수용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그러나 프라이의 신화, 원형 비평이론을 통해 이전의 방법론으로는 인식하지 못했던 한국문학 작품

episodes of the central myth of the hero whose mysterious birth, triumph and marriage, death and betrayal and eventual rebirth follow the rhythm of the sun and the seasons. N. Frye, *The Educated Imagination*, House of Anansi press, 1993, pp.46-47.

- 49) 지면상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신화, 원형 비평방법론에 의한 평문이나 연구논문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김중희의 「한국소설의 낙원의식 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광풍의 「현대소설의 원형적 연구」, 집문당, 이덕화의 「신화비평방법을 적용한 채만식의 <탁류>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등이다.

을 새롭게 분석할 수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문예비평사를 수용사적인 입장에서 파악해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외국의 비평이론을 수용할 때 한 비평가가 전 생애 동안 추구해온 비평적 관점이나 방법론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쟁점이 되는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해서 수용해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가 프라이의 경우에도, 프라이의 비평이 한국문예비평에 끼친 영향을 고찰해본 결과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1960년대 이후 N. 프라이의 신화원형비평이 왜 우리 비평사에서 수용되기 시작했으며, 당시의 다른 비평방법론들과의 관계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그리고 장르론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의 문제 등은 제대로 다루지를 못했다. 이는 앞으로 계속 기워가야 할 남겨진 과제이다.

주제어: 노드롭 프라이, 비평의 해부, 신화 비평, 원형 비평, 문학 비평

참고문헌

1. 노드롭 프라이 번역서

- 노드롭 프라이, 『신화문학론』(김상일 역), 을유문화사, 1971.
노드롭 프라이, 『성서와 문학』(김영철 역), 송실대 출판부, 1993.
노드롭 프라이, 『두 시선』(남송우 역), 세종출판사, 2003.
노드롭 프라이, 『문학의 구조와 상상력』(이상우 역), 집문당, 1987.
노드롭 프라이, 『비평의 해부』(임철규 역), 한길사, 1983.
노드롭 프라이, 『구원의 신화』(황계정 역), 국학자료원, 1995.

2. 논문 및 평론

- 김병욱, 「영원회귀의 문학」, 『문학과 신화』, 예림기획, 1998.
김선학, 「설화의 시적 수용 - 질마재 신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25, 1981.2.
김용권, 「신화비평, 현대의 비평이론」, 『월간문학』, 1968.12.
김열규, 「신화, 시의 은유와 자유」, 『문학사상』, 1973.9.
「신화적 재생, 상징, 그 형성과 원리」, 『문학과 비평』, 1989.3.
김종희, 「한국 소설의 낙원의식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1989.8.
문덕수, 「원형비평의 시도」, 『현대문학』, 1971.10.
신동욱외, 『신화와 원형』, 고려원, 1992.
신화천, 「'이러도'의 원형에 관한 연구」, 『북악농촌』3, 1985.2.
양선규,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낙원회복의 원형연구」, 경북대 석사논문, 1980.
오세영, 「한국현대시와 신화」, 『월간문학』, 1975.12.
이상섭, 『문학연구의 방법』, 탐구당, 1972.
이선영, 『문학비평의 방법과 실제』, 동천사, 1983.

3. 노드롭 프라이 저서 및 관련 저술

- Northrop Frye, *Fearful Symmetry: A study of William Blake*.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7.
- Northrop Frye, *Anatomy of Criticism: Four Essay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 Northrop Frye, *The Educated Imagination*. Toronto: 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 1963.
- Northrop Frye, *Fables of Identity: Studies in Poetic Mythology*.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63.
- Northrop Frye, *T.S. Eliot*. Edinburgh: Oliver and Boyd, 1963.
- Northrop Frye, *The Well-Tempered Critic*.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63.
- Northrop Frye, *A Natural Perspective: The Development of Shakespearean Comedy and romance*. New York: Colombia University Press, 1965.
- Northrop Frye, *The Return of Eden: five Essays on Milton's Epic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65.
- Northrop Frye, *Fools of Time: Studies in Shakespearean Tragedy*.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67.
- Northrop Frye, *The Modern Century*. Toronto: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 Northrop Frye, *A Study of English Romanticism*. New York: Random House, 1968.
- Northrop Frye, *The Stubborn Structure: Essays on Criticism and Socie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0.
- Northrop Frye, *The Bush Garden: Essays on the Canadian Imagination*. Toronto: House of Anansi, 1971.
- Northrop Frye, *The Critical Path: An Essay on the Social Context of Literary Criticism*.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1.
- Northrop Frye, *The Secular Scripture: A Study of the Structure of Roman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6.
- Northrop Frye, *Spiritus Mundi: Essays on Literature, Myth, and Society*.

-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6.
- Northrop Frye, *Creation and Recreatio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80.
- Northrop Frye, *The Great code: The Bible and Literature*. New York: Harcourt Brace Javanovich, 1982.
- Northrop Frye, *The Myth of Deliverance: Reflections on Shakespear's Problem Comedie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83.
- Northrop Frye, *Harper Handbook to Literature*. New York: Harper & Row, 1985.
- Northrop Frye, *Northrop Frye on Education*. Markham, Ont: Fitzhenry & Whiteside, 1988.
- Northrop Frye, *Words with Power: Being a Second Study of the Bible and Literature*,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90.
- Northrop Frye, *The Double Vision: Language and Meaning in Religion*. Toronto: United Church Publishing House. 1991.
- Ed by David Boyd an Imre Salusinszky, *Rereading Frye*.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9.
- David Cayley, *Northrop Frye in Conversation*, Press Anansi House, 1992
- Joseph Adamson, *Northrop Frye A visionary Life*, ECW press, 1993.
- Robert D. Denham, *Northrop Frye and Critical Method*,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9.
- Edited by Robert D. Denham and Thomas willord, *Northrop Frye*, Peter Lang, Publishing Inc, 1991.
- Edited by Robert D. Denham. *A World in a Grain of Sand: Twenty-Two Interviews with Northrop Frye*. New York: Peter Lang, 1991.
- Edited by Robert D. Denham. *Reading the World: Selected Writings*. 1935-1976. New York: peter Lang, 1990.
- Edited by Robert D. Denham. *Myth and Metaphor: Selected Essays*, 1974-1988: Charlottesville: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90.

Edited by Robert Sandler Markham. *Collection of Review Essay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Abstract>

A Study of the Influence of the Northrop Frye's Literary Criticism on Korean Literary Criticism

Nam, Song-Woo

I have considered influence of the N. Frye's literary criticism on korean literary criticism in two aspect. The one is theoretical aspect in literary criticism, the other is practical aspect in literary. In the theoretical works on the korean literary criticism Anatomy of criticism is very important influential text. and in the practical works on the korean literary criticism it is very important influential text also.

So I can conclude that korean mythical, archetypical criticism is influenced by the N. Frye's literary criticism. Especially N. Frye's work Anatomy of criticism is major influential text.

Key Words: Northrop Frye, influence, literary criticism, Anatomy of criticism, mythical, archetypical criticism.